"朝鮮算 열字"의 報告

李　　相　　國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1. '朝鮮算' 의 發見

會計 帳簿의 記入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實務界—特히 近代的 銀行 會計制度의 採擇과 關聯된 銀行 實務界—에서 傳統的인 漢文 數字에 代身하여 아라비아數字를 使用하기 始作한 時期를 究明할 目的으로 그 資料를 蒐集中, 1983年 봄 어느 날 偶然히 古書店에서「六藝之末」이라는 낡은 表紙의 冊子를 入手하였다. 勿論「六藝之末」은 古代 中國의 六箇 敎科目인 禮, 樂, 射, 御, 書, 數 가운데의 '數'로, 오늘날의 數學을 指稱함은 모두 잘 알려진 바이다. 冊子의 年代가 白牛年 즉(辛丑年) 西紀 1901年(光武5年)이므로, 當時의 아라비아 數字 使用程度를 살필 目的으로 첫 장을 여는 瞬間,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朝鮮算」이란 10個 數字를 發見하였다.

2. '六藝之末' 의 數字 表記內容

이 冊子는 安止參 講述로 되어 있다. 처음에는 純粹한 中國 傳來의 六藝之末編으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純漢文字(數字包含)로 서술되고 있다. 또 한編은 1895年 學部編輯局에서 刊行한 것으로 알려진 '簡易四則'의 問題集을 써 넣고 있는 바 韓紙에 墨筆로 쓰고 있다.

'八藝之末'編에는 前述한 바와 같이 純漢文字로 서술하고 있고, 漢文 數字外에도 '淸國' (標算 또는 胡算)을 두 군데에서 7字를 使用하고 있을 뿐, 아라비아數字의 使用은 없다. 뿐만 아니라 例의 '朝鮮算'도 '六藝之末'編에서는 볼 수가 없다.

'簡易四則問題集'編에서도 主로 漢文數字를 使用하고 國文(한글)과 漢文을 混用하고있다. 이 編에서는 '淸國算'은 하나

도 使用하고 있지 않으나, 아라비아 數字는 두 군데에서 쓰고 있는데 한 곳은 問題의 答에, 또 다른 한 곳은 마지막에 倭算이라 하여 아라비아 數字를 쓰고 다음에 漢文 數字를 쓰고 있다. 또 그옆에 '淸算'이라 하여 標算(胡算)을 表記하고 있다. 倭算과 淸算은 各各 한글로 日本音과 淸音을 적어 넣고 있으며, 아울러 洋音을 表示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朝鮮算'에 대한 記錄은 찾아 볼 수 없다.

지금까지 한 一年동안 一部 學界·言論界 및 比較的 傳統있는 實業界의 人士들을 만나는 한편, 地方에 散在된 展示物 등을 探訪하는 등으로 考證을 求하려고 하였으나, 結果는 한결같이 '처음본다', '記錄이 없다'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얻은 부산물은 있었다.

우선 「朝鮮算10字」의 發見을 報告하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 質問하실 분이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表 紙]

[朝鮮算 10字]

朝鮮算 一二三四五六七八九〇

日本算

清國算

白牛年玄蛇月青虎日始拔

陸藝之諸

六藝之末